

육우자조금 시대, 드디어 개막...!!

- 체계적 육우고기 소비홍보와 소비촉진 위한 일대 전기 마련 -

협회(회장 이승호)는 7월 31일(금) 제1차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육우자조금 사업계획과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육우자조금 사업의 첫발을 내딛었다.

먼저, 의안 제1호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건에 대해, 법적으로 축산단체가 운영하기로 되어있는 임의자조금의 특성상 이승호 협회장을 당연직 관리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의안 제2호 2009년도 육우자조금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총 2억8천만원의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조금 거출기준은 지난 육우자조금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된 1,200여명의 육우농가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6구간에 걸쳐 호당 연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납부키로 하였다. 거출수단은 지로통지서를 개별 농가별로 발행키로 하였고, 예외적으로 안성·청원지역은 해당 협회지부에서 일괄 거출하여 위원회로 납입키로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이승호 회장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리 농가들 자신뿐”이라 강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육우자조금이 출범된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육우를 알리고 우리 산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육우가격 폭락으로 국내 육우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



면한 가운데, 이번 육우자조금 거출을 계기로 육우얼굴 알리기와 육우고기 소비촉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지난 협회 이사회('04.5.21)에서 육우자조금 사업도입을, 육우분과위원회 임원회의('07.8.3)를 통해 임의 자조금사업 추진을 결의하였고, 이후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조금사업 도입을 준비해 왔다. ☺

- 참고 안 내 사항 -

1.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관리위원 : 이승호(협회장), 강병권(안성), 박근원(안성), 박종희(청원), 이채연(청원), 박영조(남원), 윤 원(화성), 박홍식(농식품부 한육우계장),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한수현(축산기업중앙회 전무), 김완영(한국농업대학 교수)
- 감사 : 나기혁(음성), 김진황(안성)

2. 육우자조금 거출기준 : 사육규모별(6구간) 정액제 (50두이하)10만원, (51~100두)20만원, (101두~200두)30만원, (201~500두)50만원, (501~1,000두)100만원, (1,001두이상)2백만원

※ 육우자조금추진위 '육우농가 현황 조사자료'에 근거, 지로청구서 발행 예정